



미륵굴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을 답사하고 있는 답사단. 이곳 석조여래좌상은 경주 남산의 불상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해 처음 불상을 접하는 사람에게 좋은 문화재이다.



탐골마에조성군 동면에 새겨진 아미타여래. 위로는 비천상이 있으며 양 옆에는 협시보살이 있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이 탐골마에조성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답사단이 마애불 앞 펼쳐진 풍광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남산의 사방은 부처요, 곳곳이 정토라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사상을 찾아서

경주 남산에는 약 120여 구의 불상이 계곡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일부는 사찰에 봉안돼 있기도 하고, 어떤 불상은 노천에서 경주를 굽어본다. 신라인들은 왜 경주의 주산(主山)인 남산에 수많은 불상들을 세운 것일까?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2월 남산 불적 답사의 주제는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사상을 찾아서'. 말 그대로 신라인들이 왜 불상을 조성했는지를 되새기는 것이다. 하지만 답사의 핵심 말은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은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사는 그 시대 사람들의 궤적을 쫓는데서 시작된다.

아름다워라! 보리사 석조여래

남산의 미륵굴 안 대숲을 따라 한참을 오르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인 보리사가 있다. 보리사는 복원된 남산 사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분위기 역시 매우 아늑하다. 이 사찰을 대표하는 성보 문화재는 보물 제136호 석조여래좌상이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높이는 4.36m, 불상 높이는 2.44m에 이른다.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해 처음 불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답사 시작 전 최 소장은 불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광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선이 어떻게 불상에 비추냐에 따라 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하지를 전후로 한

달 간 오전에 일찍 오면 산 너머에 빛이 들어 불상을 비춥니다. 이렇듯 남산의 불상에는 최적의 광선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찾아오면 더욱 좋습니다."

석조여래좌상은 팔각복련 대좌 위에 팔각기둥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둥글고 부드러운 양연대좌가 얹혀 있다. 하얀 화강암으로 조성된 이 여래상은 둥근 연꽃 대좌에 걸가부좌한 채 긴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바세계를 굽어보고 있다.

신광과 두광으로 된 광배는 화려하고 찬란하다. 부처의 32길상 중 15번째인 장광상을 표현한 광배는 그 기법이 매우 세밀하다. 하지만 오래 전 윗부분이 깨져 후대에 보수했으나 옛 모습을 전부 살려내지 못했다.

불상의 광배 뒷면에는 모든 질병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약사여래상이 가는 선으로 새겨져 있어 그 형식이 독특하다. 한국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이를 통해 앞에 있는 석불좌상이 아미타여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후면의 약사여래는 동방 유리광세계를 제도하는 약사여래입니다. 동방유리세계의 반대편은 서방 극락세계이지요. 이 불상이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어 석가여래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수인에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석굴암 조성 이후에는 이를 모방해 향마촉지인상으로 만들어진 불상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석조여래좌상은 아미타여래로 봐야 합니다."

인근에 위치해 보리사 마애석불이라고도 불리는

미륵굴 마애여래좌상(지방문화재 제193호)은 보리사 옆 가파른 산비탈을 5분 정도 타고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경사가 급한 산 허리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벽면에 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이 불상은 사람의 왕래가 드문 산 속에 그야말로 숨겨져 있다. 바위 전체가 약간 앞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여래상이 사바세계를 자비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다. 이곳 산 중턱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서라벌의 전경이 펼쳐진다.

남산 불상 감상 위해선

태양광 위치 · 시간 중요

웅장한 탐골 마에조성군을

사방사불정토신앙을 표현

자애로운 부처님 미소에

세속의 근심을 내려놓다

저 수많은 불상들을 누가 새겼을까?

동남산 탐골 마을의 앞으막한 여울을 따라 오르면 옥룡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다. 이곳에는 일명 '부처바위'라고 불리는 보물 제201호 탐골 마에조성군이 자리한다. 높이 9m에 둘레가 30m가 되는 큰 바위의 사면에는 여래상, 보살상, 비천상, 나한상, 탑과 사자상 등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이 바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 특유의 '사방사불정토(四方四佛淨土)' 신앙을 알아야한다는 게 최 소장의 주장이다.

"수 많은 경전에는 사방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뤄진 불국을 사방사불정토라고 합니다. 이들 부처들의 존명은 경전마다 상이해 사방불의 존명을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라시대의 경우 모시고 싶은 부처를 사방에 배치해 예경했으므로 존명을 알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곳 조성군은 계획적으로 사방불을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라 특유의 사방사불정토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면의 도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쪽과 동쪽이다. 북면에는 부처의 도상과 함께 양쪽에 9층과 7층 목탑이 표현됐다. 이들 탑 도상들이 신라의 목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황룡사 9층 목탑을 위시해 옛 경주에 솟아있던 목조기와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면의 도상은 사면 중 가장 화려하다. 이곳에는 극락정토의 주불인 아미타여래와 양 협시보살상, 비천상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다. 주불인 아미타여래의 모습은 어디에도 긴장된 곳이 없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표현됐다. 한없이 부드러운 두 뺨, 꼭 다문 입술, 그 언저리에 맑은 웃음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부처와 협시보살을 위시해 위로는 6명의 비천상이 날고 있다. 모두 꽃 점시를 들거나 합장해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벽의 북쪽 아래에는 희미하게 스님이 향로를 받들고 염불하는 모습이 새겨졌다. 모두 지극히 부처를 생각한 신라인들의 애절한 신앙의 소산들이다.

남산의 유일한 삼국시대 불상들

마에 조성군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부처굴 감실여래좌상이다. 부처굴의 어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다. 이곳에 '누가 부처를 모셨을

까' 싶지만, 길을 따라 오르면 이내 큰 바위 안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돌집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감실 여래는 한없이 편안한 모습이다. 다소곳이 살짝 숙인 호상이며, 초생달 같은 눈썹, 그 아래로 부드러운 눈시울은 삼매에 든 부처를 보여준다. 소담한 곡면은 입술 양가 흠에 아리어 한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이 감실 주위에는 원래 축대를 세우 지붕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감실 부처 주변 바닥에는 기와의 파편이 많다. 모두 부처를 제대로 예경하기 위한 신라인들의 불심(佛心)이다.

장창곡 제10사지는 감실여래와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감실여래와 장창곡 제10사지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상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진다. 남산 유일의 삼국시대 조성 불상이라는 점이다. 장창곡 제10사지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상, 일명 얘기부처상은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 옛날 일연 스님은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즐지어 있었는데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 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 고도 경주의 남산은 신라인에게는 주불(主佛)과 같지 않았을까. 불국토 남산을 중심으로 형성됐을 수많은 사찰들이 서라벌을 하나의 큰 사찰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석조 불상들의 희미한 미소만이 천년을 이어올 뿐이다.

경주=신동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3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일정

- 주제 : 남산에서 만나는 신라의 전설
- 일시 : 3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단한 필기구, 도시락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